

이 사람이 봄꽃에 아랑곳 않고 책더미에 묻혀 사는 이유

《66세의 영조 15세 신부를 맞이하다》 펴낸 신병주씨

1759년 6월, 66세의 영조는 15살의 정순왕후를 왕비로 맞아들였다.

창경궁에서 벌어진 이 혼례식을 세밀하게 기록한 그림이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다. 신병주씨는 이 의궤를 꼼꼼히 분석해 조선시대

왕실의 장엄하고 화려한 혼례식과 혼인풍속을 펼쳐보인다. 나아가

영조시대의 정치상황과 사회상, 그리고 생활상 등도 생생하게 복원한다.

신병주씨(38, 서울대 규장각 학예연구사)가 최근 펴낸 《66세의 영조 15세 신부를 맞이하다》(효형출판)는 16세기에 씌어진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이하 〈의궤〉)를 요즘말로 옮기고 해설을 덧붙인 책이다. 이 책이 아니었다면 1759년 6월 22일 창경궁에서 펼쳐진 영조와 정순왕후의 결혼식을 마치 눈앞에서 구경하듯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당시의 생활상들을 이토록 쉽고 상세하게 알 수 있었을까 싶은데 그는 공을 다른 데로 돌린다.

“한마디로 조상 덕 본 것이죠. 우리 조상들이 이처럼 꼼꼼하게 기록해두지 않았다면 이런 책은 애당초 만들어질 수도 없는 것이니까요.”

영조의 통치관 엿볼 수 있어

그의 말마따나 조상들의 기록정신은 정말 혀를 내두를 만하다. 〈의궤〉에는 왕비의 간택을 비롯해 청혼서를 보내는 납채, 결혼예물을 보내는 납징, 날짜를 잡아 알리는 고기, 왕비에 봉하는 책비, 왕이 별궁으로 가서 왕비를 맞이하는 친영, 혼인 후의 잔치인 동퇴연 등 혼인의 주요행사는 물론, 혼인에 필요한 각종 물품의 재료와 수량, 물품제작에 참여한 장인들의 명단과 행사와 관련해 부서간에 교환한 공문서 등이 날날이 기록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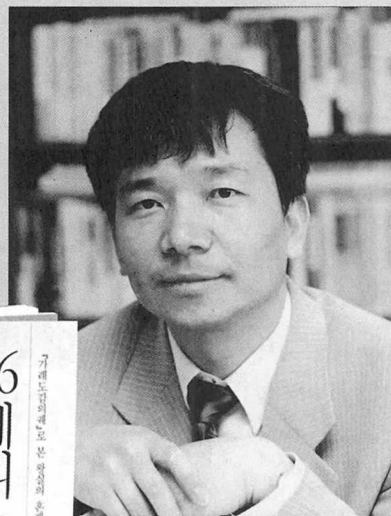
신씨는 이 기록들을 하나하나 훑어 나가며 오늘날을 사는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나 특이한 사항들을 꼭꼭 짚어주는데, 그 덕분에 행간에 숨은 당시의 생활상이나 조상들의 생각 등을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다. 특히 신씨는 사치를

막고자 한 영조의 ‘절용에민’의 통치관과 군대군대에서 드러나는 재활용 사례를 중시한다. 가령, 당시에도 ‘용환차’라고 해서 오늘날의 리스에 해당하는 개념이 있었다는 것이나 공문서의 두루마리 표지를 ‘동당낙폭지’라 해서 문과 시험에 낙방한 사람들의 답안지로 활용했다는 사실은 인상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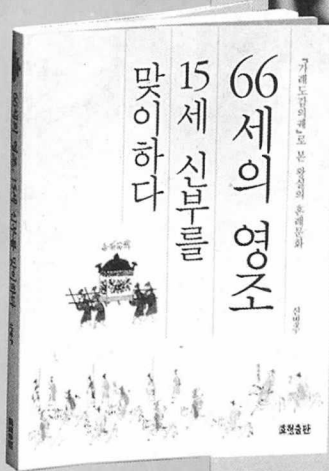
의궤 가운데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반차도〉. 반차란 임무와 등급에 따라 나뉜 순서나 절차를 뜻하는 말로, 행사 전에 미리 그려서 각 임무별로 나눠 가지고 연습을 했다는 설명이 눈길을 끈다.

“가례도감은 아무래도 국가의 경사인 만큼 〈반차도〉가 화려합니다. 특히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부터는 의궤가 두권으로 늘어났고 〈반차도〉도 훨씬 길고 풍성해졌습니다. 이는 국가의례가 이때부터 훨씬 안정된 체계를 갖추게 됐기 때문이죠.”

이 책 3장에는 1.6km에 달하는 〈의궤 반차도〉 전부가 수록돼 있는데 페이지를 넘겨가며 영조의 혼인행렬을 따라가보는 것도 색다른 재미다. 행렬에는 주인공인 왕과 왕비의 가마뿐만 아니라 호위대와 호위병력, 궁중의 상궁, 내시를 비롯해 분위기를 고취하는 악대, 행렬의 질서를 잡는 너군(헌병) 등이 자신의 임무와 역할에 따라 정해진 위치에서 행진한다. 〈반차도〉에 나타난 행렬의 모습은 뒤에서, 옆에서, 혹은 위에서 조감법



신병주씨



효형출판/A5변형/292면/18,000원

으로 그린 것 등 마치 카메라를 옮겨가며 이곳 저곳을 포착한 것처럼 생동감 있다.

당시 생활상 입체적으로 복원해

후대를 염두에 둔 꼼꼼한 기록과 잘 그린 그림이 조상의 음덕이라면 탄탄한 학문적 기초 위에서 역사학자로서 풀어놓을 수 있는 온갖 이야기보따리와 지식을 동원해 당시의 생활상을 총체적이고 입체적으로 복원한 지은이의 노력도 이 책의 가치를 더하는 요소다. 가령, 왕비로 간택된 처녀의 심정을 엿볼 수 있게 혜경궁 홍씨의 《한중록》 가운데 한 대목을 인용하기도 하고, 당시 저갯거리 풍경을 짐작해보라며 이덕무의 글을 소개하기도 한다. 영조가 왕비후보들에게 무엇이 제일 낱나고 했더니 정순왕후는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대동기문〉에서 찾아 수록한 것 등은 눈에 띄는 예다.

신병주씨는 옛사람들이 자신들의 의식이나 예법을 중시하고 그것을 후대에게 전하고자 꼼꼼하게 기록한 것은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친취적이며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조선시대의 진면모를 제대로 밝히는 것. 이것이 신병주씨가 봄꽃에도 관심을 두지 않고 규장각 책더미에 파묻혀 사는 이유다.

—박남정(자유기고가)